선지식들 주석, 기신론 더욱 풍부해져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고래(古來)로 기신론에 대한 주석서가 많이 나왔다. 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 · 중 · 일 동양 삼국에서 간행된 기신론 주석서가 200여 종에 달하고 특히 불교학이 발달된 일본에서 간행된 기신론 연구서만 하여도 최근까지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는 것은 바로 기신론이 대승불교의 중요한 텍스트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초의 기신론 주석서는 중국의 수(隋)나라 때 담연(曇延, 516~588)이 지은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이다. 그는 처음 〈열반경〉 연구에 몰두하여 〈열반경소〉를 짓기도 하였는데, 잠을 자다 꿈에서 마명을 만났다는 설화가 있다.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그에게 〈열반경〉의 근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을 담연은 마명보살이라 생각하여 그가 〈기신론〉의 저자임을 믿고서, 〈열반경〉의 대의와 〈기신론〉의 대의가 서로 상통함을 발견하고 기신론의 소를 짓는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한다.

〈열반경〉의 중요한 대의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중생실유불성설(一切衆生悉有佛性說)'이다. 이는 기신론의 진여설과 그대로 상통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열반경과 기신론을 통하여 당시 중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소개된 것이다. 담연에 의하여 기신론의 가르침이 당시 중국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다.

담연은 북주(北周) 문제(文帝)의 귀의를 받아 한 때 국통(國統)으로 있었던 스님이다. 그러나 후에 무제(武帝)의 폐불사태(廢佛事態)가 일어나 태행산(太行山)에 숨어 지내기도 한다. 이때 그는 기신론의 서문인 귀명게를 읽으며, 불교가 쇠망할까 안타까워하여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불교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법을 펴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다가 수나라 문제 때 황제를 만나 불교를 부흥시켜 주기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그를 신임하여 불교의 승려들을 지도하게 하게 한 적이 있다. 그가 지은 〈열반경소〉는 일부분만 전해지고 〈기신론소〉는 상 · 하 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권이 없어지고 현재 상권만 전해지고 있다.

담연과 같은 시대의 지개(智愷, 518~568)도 〈기신론소〉를 지었다. 그는

6~20세기 기신론 주석 200종
대승불교 중요 論書임을 입증

기신론의 주(註)와 소(疏), 그리고 〈일심이문대의(一心二門大義)〉, 〈소주본교합(疏註本校合)〉 등 4개의 저술을 했다고 하지만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목록〉에 이름만 남아 전할 뿐이다.

혜원(慧遠, 523~592)이 지은 〈대승기신론의소〉는 예로부터 여러 소들 가운데 '삼대소(三大疏)'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소로 알려져 왔다.

똑같은 이름의 〈대승기신론의소〉를 당(唐)의 화엄 2조 지엄(智儼, 602~668)이 지은 것도 있었지만 남아 전하지 않는다. 세 사람의 소(疏) 이름이 같았다는 것이다. 혜원은 원래 선법(禪法)을 열심히 닦아 이름이 알려진 승조(僧稠, 480~560)의 제자였다. 승조는 달마가 중국에 오기 이전의 선법인 선관(禪觀)을 닦아 선승으로 이름나 있던 스님이었다. 이 승조에게 와서 법을 구한 혜원이 선관을 닦다가 기신론의 '심진여(心眞如)'라는 말에 매료되어, 관법 중에 진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일체 망념이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여라는 것을 터득하였다 한다. 그의 〈기신론소〉에는 "심법 가운데 망(妄)이 없어진 것을 진(眞)이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혜원은 한때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였는데, 〈법화경〉과 〈유마경〉을 1000번씩 읽었다 한다. 그렇게 경을 열심히 수지독송하고 호법의 서원을 크게 세워, 북제(北齊)를 멸망시킨 북주(北周)의 무제(武帝)가 폐불정책을 펴 불교를 탄압할 때 무제에게 불교를 탄압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던 불교 탄압 중지를 결연히 요청해 주위를 감동케 했다는 것이다.

재물이 있어도 자비심이 없다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㊶ 재물 보시에 대한 설법

財物施品第九(재물시품제구)

如有二人。一則大富。一則貧窮。有乞者來。如是二人俱懷苦惱。有財物者懼其求索。無財物者我當云何得少財物與之。如是二人憂苦雖同果報各異。悲惱念者生天人中受無量樂。慳貪者生餓鬼中受無量苦。若菩薩有悲愍心於前眾生便為具足。況復與少物。如人大富多有財寶。隨意而用心生歡樂。菩薩悲心念施憂惱過於是人百千萬倍。有悲心者無有財物。見人乞時不忍言無悲苦墮淚。見苦惱者不能墮淚。何得名為修行悲者。勝者設聞他苦尚不能堪忍。況復眼見他苦惱而不救濟者。無有是處。(여유이인。일즉대부。일즉빈궁。유걸자래。여시이인구회고뇌。유재물자구기구색。무재물자아당운하득소재물여지。여시이인우고수동과보각이。비뇌념자생천인중수무량락。간탐자생아귀중수무량고。약보살유비민심어전중생변위구족。황부여소물。여인대부다유재보。수의이용심생환락。보살비심념시우뇌과어시인백천만배。유비심자무유재물。견인걸시불인언무비고타루。견고뇌자불능타루。하득명위수행비자。승자설문타고상불능감인。황부안견타고뇌이불구제자。무유시처。)

번역

재물 보시에 대한 품 제9

가령,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하였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왔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과 번뇌가 생겼습니다. 재물이 있는 이는 구하고 찾을까봐 두려워하고, 재물이 없는 이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적은 재물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근심과 괴로움은 비록 같지만 과보는 각기 다릅니다. 자비심으로 괴로워하는 이는 하늘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게 됩니다. 아끼고 탐욕스런 이는 아귀로 태어나서 무량한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 앞에서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췄다면 하물며 적은 재물을 주었어도 큰 부자가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진 것과 같아서 뜻에 따라 쓰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보시하려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 사람보다 백천만 배나 뛰어납니다. 자비심이 있는 이는 재물이 없어도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자비심으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괴로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자비심을 수행한다고 부르는 이와 수승한 이가 가령 타인의 고통을 들으면 어찌 감내하며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다시 눈으로 타인의 고뇌를 보고 구제하지 않는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인가? 법성이라는 것이 세상의 근본을 이르는 말이니, 근본이야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법성은 원융하여 다른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리라. 내 마음 따라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의 세상에 살고 있다. 먹을 것도 분별해서 먹고, 입을 것도 분별해서 입고, 잠자리도 분별해서 거처한다.

그런데 법성의 자리와 현상의 자리를 혼동하면 이사무애(理事無碍)가 아니라 법성의 이치와 현상의 이치에 장애가 생긴다.

선악 구분을 안 하면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요, 선악에만 치우치면 법성을 부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사무애가 될까. 그 악한 현상도 어떤 선연에 변화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 제바라보살은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악과 선을 구분하길 바라고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出家에 대해

출가(出家)란 선택의 과정이고 결심의 문제이다. 출가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결단일 터이다. 누구에게나 풀어야할 걱정과 고민이 빛과 어둠으로 생각의 윤회를 거듭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사문유관(四門遊觀)처럼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어둠의 그림자는 숱하게 널려있다. 그 생명의 굴레 같은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사문(沙門)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색깔 진한 아픔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하던 일을 접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出家)는 커다란 포기를 의미한다. 출가는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생명의 또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는 패자(敗者)의 은신처이거나 피난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출가는 포기 아닌 새로운 선택
敗者들의 은신처 · 피난처 아니다

여래십호(如來十號)중 하나인 조어장부(調御丈夫)의 의미처럼 승리자의 길이 출가요,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해탈자(解脫者)의 삶이 출가자에겐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 집단인 승가(僧伽)의 세계도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와 생활의 갖가지 매뉴얼이 널려있기 마련이다.

계으름을 병으로 알아 열심히 간절심으로 정진하는 기본자세로부터 지키고 엄수해야 할 생활 규범도 계(戒)와 율(律)이라는 무게감으로 등장한다.

공동체에서는 화합(和合)이 첫째 지켜야 할 덕목이므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 궤도이탈이 없어야 한다. 새벽예불, 발우공양, 대중운력 등에는 선택이 아닌 참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강요로 치닫지는 않는다.

승가 공동체에서는 개인 의견이 존중되나 대중의 뜻은 부처님 뜻으로 받드는 풍토일 뿐이다.

대중스님들이 모여 정진(精進)하는 큰방 옆에는 어느 사찰이나 지대방이 있기 마련인데 지대방은 누구나 평등하게 휴식을 취하며 잡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있다. 승가공동체에는 대중공사라는 이름으로 개인 의견을 펼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열린 마당이 자유롭게 열려있다.

사찰은 열려있다. 승려의 세계도 열려있다. 단기출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사찰규범이 엄격해 군대규율처럼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후일담을 늘어놓지만 승가공동체는 개인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의 열린 세계이다.

첫째, 출가이전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 둘째, 승려 생활은 개인의 선택일 뿐 오고감이 자유롭다. 셋째,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머물고 떠날 수 있는 여행의 자유 · 수행의 선택이 자유롭다. 넷째, 타고난 재능 발휘도 인정되고 활동도 자유롭다. 노래 잘 부르면 가수로, 글짓기 잘하면 작가로, 그림그리길 좋아하면 화가나 단청장으로, 춤추길 좋아하면 범패음악의 승무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 쪽이면 주지로, 수행 쪽이면 수좌로 언어의 표현 능력이 좋으면 포교사로, 글로벌 활동도 자유롭다.

출가는 무거운 포기이지만 또 다른 선택의 즐거운 생활이 열려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經典)을 밑줄쳐가며 공부해가는 학문 수행과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정진하는 심성수행의 삼매경(三昧境)은 또 하나의 기쁨이자 텅 빈 충만을 누리는 행복과 자유인 것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꾸밈과 조작도 없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얽매임 없이 소유욕 없이 자연인의 삶, 자유인의 해탈은 출가자의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다.

마음만 열고 보면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다운 진리 아닌 게 없는 것이다. 진리는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아웃사이더의 삶이 인사이드의 밝은 빛으로 충만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출가(出家)는 포기가 아닌 새로운 선택이다. 출가의 완성은 해탈자의 자연인에 이르는 것이다. 텅 빈 충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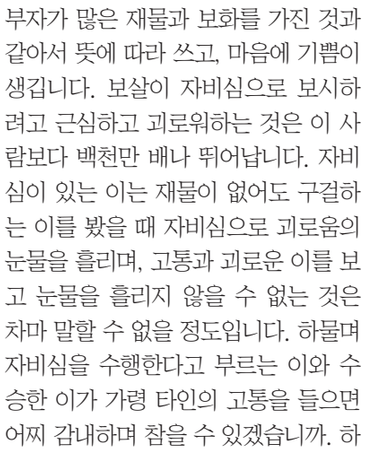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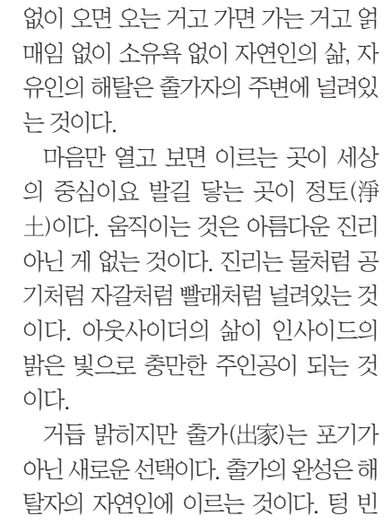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